

		보 도 자 료		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인천광역시
배포일자		2021년 4월 21일(수) 총 2매		
담당 부서	수산물 지원센터	담당자	• 수산물안전관리팀장 김율민 ☎458-7451 • 주무관 최정인 ☎458-7453 • 주무관 윤재호 ☎458-7455	
사진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조사 확대 실시

-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조사 강화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(* 21. 4. 13.)에 따라 인천 연안의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잔류량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.

이를 위해 인천시 수산물지원센터에서는 수산물 안전성 조사 횟수와 대상을 늘려 기존 계획 대비 40%(125건 → 175건) 확대 시행 할 계획이다.

또한, 수협중앙회 및 지역별 수협, 관할 어촌계의 협조를 받아 시료수거·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인천 주요해역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를 매일 센터 홈페이지(www.incheon.go.kr/susan)에 게시해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.

한편, 인천시 수산물지원센터는 2020년 12월 신청사 이전 및 분석장비 구축에 따라 수산물 안전성 조사 항목을 기존 중금속 3개 항목

에서 추가로 방사능, 항생물질, 금지물질 등 42개 항목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.

조명노 인천광역시 수산물지원센터 소장은 “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 시행하고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인천 시민들의 수산물 관련 불안이 해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 고 말했다.

<수산물 안전성 조사(방사능 잔류량 분석) 참고사진>

